

# 수원극장(水原劇場)의 역사와 그 의미\*

## History and Meaning of Suwon-theater

김남석 Kim Namseok\*\*

### Abstract

The beginning of the local theater in Suwon is the Suwon-theater. The 'Suwon-theater', which started operating in the 1920s, was also called 'Suwon-jwa' and was recognized as a famous spot in Suwon early on. The Suwon-theater was reborn as a corporation in the 1930s. The Suwon-theater was built, maintained, managed and maintained by businessmen such as Yang Gyuryong, who is the maintenance of Suwon, and Hong Sagoon, who was the other maintainer. The Suwon-theater was able to survive as a huge interest group with a complex entangle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Suwon Financial Association and Japanese businessmen. What is more noticeable is that this "Suwon-theater" was a huge medium and a common place for the desire and will of Suwon residents. This feature does not end with the Suwon-theater. Since then, theaters built in Suwon have a similarity in that they operate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deals of construction and the intention to operate. Local residents of Suwon watched drama and film, presented their performances and meetings, and consequently gathered and gathered information and ideas of local people at Suwon Theater. So Suwon Theater was a place for human exchange and a cultural exhibition space for local people in Suwon.

Keywords: Suwon-theater, Public Hall, Merchant, Hong Sagoon, Yang Gyuryong

### I. 문제 제기

한국의 여러 도시 중 수원이 특별히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조의 수원성 건립 이후 계획도시로 부상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원은 비약적인 성장과 도시 기능의 확대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원은 1920년대 이후 조선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수원에는 비교적 이

른 시기부터 극장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극장 문화의 시초를 이룬 것이 수원극장이다. 이후 수원극장은 수원의 문화와 역사적 인프라로 활용되며, 오랫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원극장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보고서 형식으로 관련 연구가 제출된 적은 있지만, 학술적 형태로 기술되어 정식 연구 성과로 게재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지역극장의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

\* 본 논문은 '김남석. 2016.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수원: 수원시정연구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관련 내용을 확대·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Prof.,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Pukyong National Univ. | darkjdi@dreamwiz.com

태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는 극장의 범용적 기능과 역사를 추적한 일련의 저술이다(유민영 1982; 고일 2001; 신선희 2006). 이러한 기술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홍영철의 저술로 정점에 도달하였다(홍영철 2014). 다만 홍영철의 저술은 부산 지역에 특화되었으며, 영화관으로서의 기능만 조명하는 제한된 연구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주목할 만한 저서가 산출되었는데, 이 저서의 기본 관심은 극장의 역할과 콘텐츠의 상관성에 있었다(이상우, 김종진, 김현철, 박영산 외 2013). 이 밖에도 지역극장에 전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이승희(2010), 배선애(2010), 위성혜(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과 극장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원과 지역극장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sup>1)</sup> 1920년대부터 수원극장은 ‘수원의 얼굴’로서 ‘수원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까지도 수원극장은 수원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극장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인지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의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가치와 의의를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수원극장은 한국 극장의 역사에서는 비등한 사례를 쉽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된 문화적 유산을 다수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극장의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린다는 측

면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극장에 대한 연구는 지역과 극장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참조사항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수원극장 건물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극장의 현재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극장이 대부분이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이 극장사의 주요 맥락을 차지하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수원극장의 현존은 적지 않은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라도 수원극장에 대한 기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연구와 활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이전에 수원극장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 시점부터 수원극장의 발자취를 수집하고, 주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극장의 문화적 활동 상황을 논구하는 연구 방식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수원극장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문헌학적 연구로서 수원극장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면서, 그 기원을 찾는 작업은 이러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수원극장의 기원과 명칭

### 1. 수원극장의 기원

수원극장이라는 명칭이 처음 발견되는 시점은 1922년 이다(매일신보 1922c). 1922년 5월 3일부터 수원의 기

1) 최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 발굴되어 뒤늦게나마 연구사적 주목을 받고 있음. 이 글은 수원의 극장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록에 해당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음(양훈도 2014).

생들은 상업강습소를 돕기 위하여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연주회장이 수원극장이었다. 수원예기조합은 1920년대에 수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동아일보 1921; 동아일보 1925f), 대표적인 권번인 수원화성권번은 수원극장에서 동정연주회를 개최하여 위경(危境)에 처한 만주동포를 구하려는 전국적 움직임에 중요한 일원으로 동참한 바 있다(동아일보 1931). 이러한 수원예기조합 혹은 권번 조직은 일찍부터 수원극장을 중요한 활동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그만큼 이른 시기부터 수원 예기들이 수원극장을 사용한 전례가 확인된다고 하겠다.

또한 위의 사항을 통해 수원극장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원극장은 1930년대에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찍이 1920년대에도 동일한 명칭의 극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른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수원기생 자선극(慈善劇)

수원기생일동은 수원극장에서 금월(今月) 3일부터 동(同) 6일까지 사일 간 동지 상업강습소(同地商業講習所)를 위하여 자선극을 행(行)하였는데 기(其) 상세한 내용을 들은 즉 동(同) 강습소가 창립 이래 13년을 경(經) 하였으나 원래 기본자산이 무(無)하여 우금(于今) 근근히 보지(保持)하였으나 작금 입학지원자가 격증함을 따라 교사(校舍)의 협애(狹隘)를 고(告)하여 태(太)히 곤란함으로 동기생(同妓生) 등도 차(此)에 대하여 다소 조력코저 하는 지(志)로 금반 자선극을 흥행하게 된 것이라더라(수원)(동아일보 1922a).

동아일보 기사는 매일신보 기사와는 달리 4일간 공

연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 정도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수원에서 기생들이 실제로 공연을 펼쳤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공연 목적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당시 수원기생 일동이 강습을 받는 '상업강습소'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할 요량으로 기생 일동이 자선극을 기획하였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상업강습소는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 강습소를 나온 기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태가 되었던 강습소 돕기에 나섰고, 이를 통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두 신문의 기사를 통해 수원극장이 1920년대에 이미 존재하였고, 공연(자선극을 포함한 연주)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에도 수원극장의 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8월 하와이(포와) 학생단이 수원을 방문하여 수원 주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실제로 이 학생단은 조선을 일주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일례로 1923년 7월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제일관에서 공연한 바 있었다(동아일보 1923b; 조선일보 1923a). 마찬가지로 하와이 학생 연주단은 수원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환영행사에 참여하였고, 수원 유지와의 만찬 및 시내관광 등의 일정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강연음악회였는데, 음악회는 1923년 8월 16일 오후 8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이 강연음악회의 공연 장소가 수원극장이었다(동아일보 1923a).

이 하와이 학생단 환영행사는 수원의 주요한 업무였다. 대대적인 인파가 수원역으로 마중을 나가고, 수원의 유지들이 앞다투어 부대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환영 야구대회도 열릴 정도였다. 이러한 환영행사는 비단 수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안이었다. 따라서 하와이 학생단의 공연 장소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이어야 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원극장은 이미 1920년대 초반에 수원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해야 한다.

## 2. 이칭으로서 ‘수원좌(水原座)’

수원극장의 또 다른 이름은 ‘수원좌’였다. 1925년 2월 수원청년회 산하 연예부는 소인극(아마추어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음력 정월 3~16일에 공연을 준비하였다(동아일보 1925c).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그 공연처를 ‘수원좌’로 명기하였는데, 같은 내용을 다룬 동아일보의 다른 지면에서는 공연처를 ‘수원극장’으로 기록하여(동아일보 1925e) 두 극장이 같은 극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기사는 나란히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연장으로 지칭되는 수원극장을 ‘수원좌’로도 지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원극장이 실은 ‘수원좌’를 가리키고 있음을 증빙한다고 하겠다.

일제강점기 ‘극장’을 가리키는 일본식 명칭은 ‘좌(座)’였고, 이로 인해 ‘좌’는 ‘극장’이라는 말과 흔히 혼용해 쓸 수 있었던 용어였다. 수원극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수원좌’로 통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언론기관에 노출된 용어로는 ‘수원좌’의 용례가 간헐적이고, 대부분의 기사는 ‘수원극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수원극장이 곧 수원좌라면, 수원극장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수원극장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수원극장은 수원성 외 사거리(水原城外四距離)에 위치해 있었고, 하족료(下足料)가 3전이었다(동아일보 1928c). 하족료는 일종의 신발 보관료를

가리킨다.

경성극장이 자리한 곳은 일본촌이어서 극장의 관객도 모두 일본인이었고 공연 프로그램도 일본에서 건너온 신파극단의 공연이나 가부끼의 공연 일색이었다. 신발표라는 것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의 신발을 보관하는 일종의 보관증이다. 내(고설봉: 인용자)도 해방 후에 그곳에서 몇 번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은, 객석이 결상이 아니고 다다미로 되어 있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즈음 목욕탕 들어가듯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야 했다. 관객에게 신발표를 떼어주는 것이 임성구의 역할이었다(고설봉 1990).

위의 인용문은 고설봉이 증언한 것으로, 1910년대 임성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성구는 하족실의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일본식 신파연극에 흥미를 쏟게 되었고, 마침내 조선 최초의 신파극 공연을 기획하였다. 하족실은 극장 입구에 마련된 관객의 신발 보관 장소로, 이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극장이 일본식 극장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의자 객석이 아니라 다다미 객석이었고, 무대 역시 화도(花道)가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극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족료에 관한 기사는 1928년에 게재되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1920년대 후반까지는 수원극장이 일본식 구조를 지닌 극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 증거는 수원극장이 일본 자본에 의해 건립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여 준다.

현재로서는 수원극장의 창립과 기원에 대한 이보다 더 명확한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극장은 1920년대에 일본인의 자본과 기획에 의해 수원성 바깥 사 거리에 설립되었고, 이후 조선인 행사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행사를 시행하는 종합적, 다

목적 형태의 극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 III. 주식회사 수원극장의 발족과 그 운영

#### 1. 주식회사 수원극장

수원극장은 1933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체제로 발족하였다(화성연구회 편 2004). 극장 설립 목적은 ‘극장 활동사진 연예 및 관물(觀物)을 공중에 관람 또는 청문(聽聞)에 제공하고 또는 공중에 대연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사진’은 영화, 그중에서도 무성영화를 가리키고, ‘관물’은 공연 콘텐츠, 즉 무대 위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상연되는 프로그램 일체를 가리킨다. 일제강점기 지역극장의 공연 콘텐츠는 다양해서, 비단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소인극 공연, 만담(야담) 대회, 무용 공연, 심지어는 체육행사까지 열렸으며, 당연히 영화(활동사진)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한편 수원극장의 설립 목적 가운데 특히 ‘청문’이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지역극장은 시각적 공연 콘텐츠뿐만 아니라 청각적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람’뿐만 아니라 ‘청문’이라는 용어도 별도로 명기될 필요가 있었다. 가령 음악연주회, 명창대회는 이러한 청문 관련 행사였다. 더 나아가서 강연회와 토론회, 혹은 부민대회류 집회나 연설을 동반한 행사도 ‘청문’의 대상이었다.

지역극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종류의 행사는 주로 시각적 관람을 위주로 하지만, 그중 일부는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청취가 주요 대상이 되는 콘텐츠도 존재하였다. 당연히 당대의 관객들에게 청각적 수용 행위인 ‘청문’은 주목할 만한 참여 활동이 아닐 수 없었다. 곧 수원극장은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퍼포밍 아트(Performing Arts) 유형의 콘텐츠나 영화, 그리고 청취를 위주로 하는 각종 행사 등을 상연(개최)하거나

이를 상연할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 대어되는 사업, 즉 극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었다(中村資良 1935).

당시의 수원극장은 현재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 교동(校洞) 128번지, 위도상으로 북위 37도 16분, 동경 127도 01분에 위치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교동사 거리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1933년 건축 당시의 설계자는 가토 미키오(加藤幹雄)였다. 1933년 신축 당시 공사비로 2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하 1층/지상 2층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연면적은 160평에 ‘적벽돌 조적조’로 건축되었다. 이 시기 지붕의 재료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1964년 이후의 기록을 참조하면 ‘슬레이트’ 지붕이었다고 한다(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가토 미키오는 1923~1924년 당시, 경기도 내무부 회계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본인으로 파악된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1935년 조사 시점에 수원극장은 자본금 1만 5천 원에 불입금이 3,750원인 상태였고, 경기도 수원군 수원을 산누리 393-2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장은 양규룡(梁奎龍)이었고, 전무이사는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 조선인 이사와 감사로 윤태정(尹泰貞), 홍사훈(洪思勳)이 포함되어 있었다(中村資良 1935).

배석만은 경영진 내에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인 지역 유지들의 주도하에 일본인들과의 합작’ 투자가 일어난 정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배석만 2014, 279). 또한 1955년(6월 23일)에 홍사훈이 수원극장을 불하받는데, 이것은 ‘수원극장 내의 일본인 지분을 불하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955년 재무부 산하 연합청산사무국이 귀속기업체의 불하 상황을 정리한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가격은 215만 9천 원이었고, 10년 상환조건이었다. 창립 시점에 수원극장의 좌석 규모는 599석이었다(화

성연구회 편 2004, 251).

따라서 수원극장 운영진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홍사훈'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홍사훈은 양규룡 초대 사장에 이어, 수원극장의 두 번째 사장으로 취임한다. 그러니까 1937년 시점의 수원극장 사장은 홍사훈이었고, 자본금 1만 5천 원, 불입금 1만 5천 원으로 회사 경영이 좋아진 상태였다. 이사들의 변동 사항도 일부 발견된다. 감사였던 홍사훈이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사장이었던 양규룡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中村資良 1935).

1935~1937년 사이의 회사 변동 사항 중 인사 관련 변동은 두 가지 논점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감사였던 홍사훈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새로운 감사 이광현이 입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장이었던 양규룡이 이사진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경영진 구성은 1939년까지 지속된다.

다른 변화도 두 가지 논점으로 압축 정리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 말한 불입금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위치의 변화이다. 회사 주소가 '수원군 수원을 궁정 128'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주소의 변화, 즉 행정구역상의 변화로 여겨진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정구역상의 변화가 동시에 수원극장이 지닌 입지의 변화, 즉 외곽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의 수원극장은 영사기 2대를 갖추고 있었고, 창립 시점의 좌석수 599석에서 다수 늘어난 644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1964년에는 15만 3천 명 정도의 연간 관람자수를 기록하였고, 종업원은 15명에 달했다. 수원극장은 2000년 3월 26일 폐업한 것으로 조사

되며, 당시의 대표자는 전락선이었다(화성연구회 편 2004, 251).

## 2. 수원극장의 운영자와 그 면모

### 1) 초대 사장 양규룡

수원극장의 첫 번째 사주로 확인되는 인물은 양규룡(梁奎龍)이다. 양규룡은 1929년에 설립된 (株)수원양조(水原釀造)의 사장이었다. 이 회사는 경기도 수원군 수원을 산누리 20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中村資良 1935). 위치상으로 보면 수원극장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수원양조는 '조선주의 제조와 그 부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양씨 집안과 친연을 맺고 있는 수원의 유지들이 이사와 감사진을 맡고 있었다.

양규룡은 양규룡의 형으로, 두 형제는 모두 양성관(梁聖寬)의 아들이었다. 양성관은 홍민섭(홍사훈의 부친)이나 한상봉 등과 함께 수원 유지 1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1909년 수원상업강습소를 설립하여 수원 지역 산학협력의 물꼬를 튼 사업가 중 핵심 인사였다. 처음에는 일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던 그는, 수원상업회의소를 발판으로 수원 상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양성관과 함께 1933년부터 (株)용수홍농에서 활동한 이가 홍사훈(洪思勳)이었다. 양성관은 일찍부터 금융업계에서 홍민섭-홍사훈 등과 사업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순 2014, 460-462)<sup>2)</sup> 결국 수원극장은 양성관의 자식 세대인 양규룡-양규봉과 홍민섭의 자식 세대인 홍사훈이 이어받아 사업상의 관계를 맺고 설립

2) 1909년 '용수농계'로 시작한 용수홍농(주식회사)은 1927년 용수홍농조합을 합병하였고 1927년 주식회사 형태로 새롭게 출발하였음. 이 과정에서 오성선은 농가의 중차대한 문제였던 고리부채 청산을 위해 금융조합과의 연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용수농계 혹은 용수홍농 주식회사의 핵심 활동은 고리부채 청산과 농가경제 향상으로 모아짐. 양씨 가문과 홍씨 가문은 이 과정에서 일종의 협력 관계를 맺고 용수홍농에 투자했으며, 특히 홍사훈은 용수홍농에서 주요한 활동을 펼쳤음(이승순 2014, 460-462).

한 회사라 할 수 있다.

## 2) 홍사훈과 양규룡의 관계

양규룡에 이어 수원극장 사장에 오른 이는 홍사훈이었다. 홍사훈이 1933년 시점에는 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장직 계승은 홍사훈의 내부 승진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홍사훈과 양규룡의 관계는 비단 수원극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Figure 1>에 의거하면 1933년 수원금융조합의役員(役員)을 개선(改選)한 결과, 홍사훈이 조합장을 맡게 된다. 이러한 수원금융조합은 홍사훈-양규룡-에구치 모리오-윤태인(수원극장 윤태정 이사의 친인척) 등 수원의 내로라하는 명사들과 유지들이 모인 곳이었다. 1933년에 치러진 금융조합총회는 이러한 명사들 가운데에서도 홍사훈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1937년 수원에서 열린 시민운동회의役員 구조를 살펴봐도, 이러한 명사들의 위상과 연계 세력이 엿보인다. 대회를 주관하는 회장은 양규룡이, 명예회장은 홍사훈이 맡았으며, 임원 중에는 홍길선과 이광현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역시 수원을 대표하는 명사

유지로, 이 대회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인 셈이다. 수원에서 체육 관련 시설과 행사는 이러한 명사들의 만남과 협연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양규룡이 체육인 출신이라는 점은 그가 이 연계망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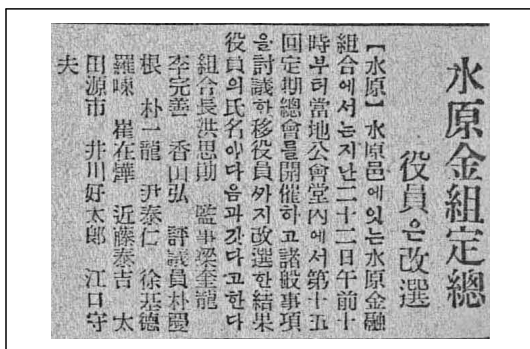
## 3) 홍사훈과 그의 일가 그리고 지역 유지들

홍사훈은 수원을 대표하는 재계 사업가였고,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지역의 지도자였다. 홍사훈의 아버지 홍민섭은 부산상업회의소 부회두(副會頭)를 역임한 바 있고, 이 상업회의소에서 상업강습소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홍사훈은 이 상업강습소의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수원의 사업가들 중에서 홍민섭과 같은 세대—소위 '수원의 유지 1세대'—로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 '한상봉'이었는데, 그의 지위를 물려받은 이가 또한 홍사훈이었다. 홍사훈은 한상봉에 이어 도회의원이 되었고(이승렬 2013, 170-171), 1930년대 주요 사업체의 요직에 앉게 된다.

홍사훈은 대체적으로 보부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포목상조합에 가담하여 부를 확장했고, 1930년대에는

Figure 1\_ Relationship between Hong Sahoong and Yang Gyuryong in Suwon Financial Group



Source: Maeil Shinbo 1933.

Figure 2\_ Member of Civil Movement Group



Source: Maeil Shinbo 1937.

대토지를 사유한(549정보) 재력가로 성장해 수원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재력과 상계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이승렬 2013, 178-185).

홍사훈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혁(사음 폐지, 이자 인하, 자금 융통, 토지 환급)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인근 농촌 소작인들의 환영을 이끌어내었고, 사비를 교육 기관에 투자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근대적 조치를 수원과 그 인근 지역에서 스스로 실행하는 지식인이자 사업가로 성장하였다(동아일보 1925g; 동아일보 1930; 동아일보 1933).

홍사훈의 이러한 성장은 1920년 무렵의 그의 행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홍사훈은 수원청년구락부의 일원으로 뚜렷하게 활동한 바 있다. 동아일보사 최상훈 국장이 발문하여 결성된 수원청년구락부의 주요

부원은 최상훈을 비롯하여 홍사훈, 홍사안, 박성근, 윤태은, 이광현 등이었다. 특히 이광현은 수원극장 경영에 함께 참여한 인물로(동아일보 1920), 홍사훈이 사장으로 취임하자 공식이 된 감사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유를 수원청년구락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원의 재력·유지 가문의 간략한 계보도를 작성해 보면 <Figure 3>과 같다.

홍사훈이 수원극장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 홍사훈의 아버지 세대에 수원의 유력한 사업가는 양성관, 한상봉, 차유순, 그리고 홍민섭 등이었다. 이들은 수원의 경제력을 한 손에 움켜쥔 재력가이자, 지역 유지들이었다. 그들은 상업회의소를 세웠고, 강습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Figure 3\_ The Genealogy of Major Families in Suwon

	Yang's Family	Hong's Family	Lee's Family	Han's Family
1st Generation of Celerity	Yang Seongwan	Hong Minseop		Han Sangbong
	Founding Suwongangseupso, President of Suwon Financial Group, Auditor of Jeil Company, Director of Yongsuheungnong Company	Director of Yongsuheungnong Company, Vice-chairman of Busan Chamber of Commerce, Operating Suwongangseupso		
	Continue Close Business Ties			* Political Intimacy with Hong's Family (Hong Sahoong)
2nd Generation of Celerity	Yang Gyubong (Big Brother)	Yang Gyuryong (Younger Brother)	Hong Sahoong	Lee Gwanghyeon (Lee Nohyeon, Lee Daeghyeon)
		The First President of Suwon-theater	The Next President of Suwon-theater	Auditor of Suwon-theater
		Continue Close Business Ties (Suwon Financial Group, Civil Movement in Suwon, Suwon Business Corporation)		Participating as an Executive of Suwon-theater
	Operating Jeil Company	Suwon Brewery Management, Chairman of Suwon Sports Council, A Village Councilor	Operating Manjongwon, Vice-chairman of Suwon Industrial Association, Hwaseong Academy	Officer of Jeil Company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the Civic Movement in Suwon in 1937			

Note: The figure summar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Yang's family, Hong's family, Lee's family and Han's family in Suwon.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변화하기에 이른다. 사회개혁과 민족자본을 통해 조선을 일으켜 세우려는 활동이 위축되고, 현실적인 지배자가 된 일본 세력과의 사회적·경제적 협력이 부각되었다.

수원 유지 1세대 중 유력자였던 양성관은 대토지와 각종 사업을 아들인 양규봉-양규룡 형제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수원의 상계와 재계로 침투하여 양씨 일가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다른 상인들이나 사업가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홍씨 가문과의 협력과 교류이다. 홍씨 가문의 대표적인 사업가였던 홍사훈은 양규룡과 여러 루트로 사업 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주목되는 점이 1930년대 이후 사회, 경제, 재계 및 각종 사업의 중심이 홍사훈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홍사훈은 정치적으로는 한상봉의 뒤를 잇고 경제적으로 양성관을 누르면서, 수원의 가장 유력한 사업가이자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사회사업가이자 지도자로 부상한다. 수원극장 사장으로서의 이적은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위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수원극장 경영 자체가 사회사업과 교육 봉사 그리고 체제 변혁을 은근히 유도했던 홍사훈의 사회적 가치관과 맞물리는 구석이 있었다. 수원극장은 이익 추구 기관이고 일종의 사업체였지만, 동시에 수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교와 계몽, 유희와 회합의 공간이어야 했다. 실제로 수원극장의 운영은 이러한 대사회적 목표와 공익성을 염두에 둔 채로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경영 방식 또한 이러한 철학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즉 홍사훈이 수원극장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봉사와 변혁의 일환이었고, 대중과 조선인을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극장의 주식회사 출범 이후 상황을 점검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수원극장의 의의와 한계를 논할 때에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IV. 수원극장과 지역사회

### 1. 문화 인프라로서 수원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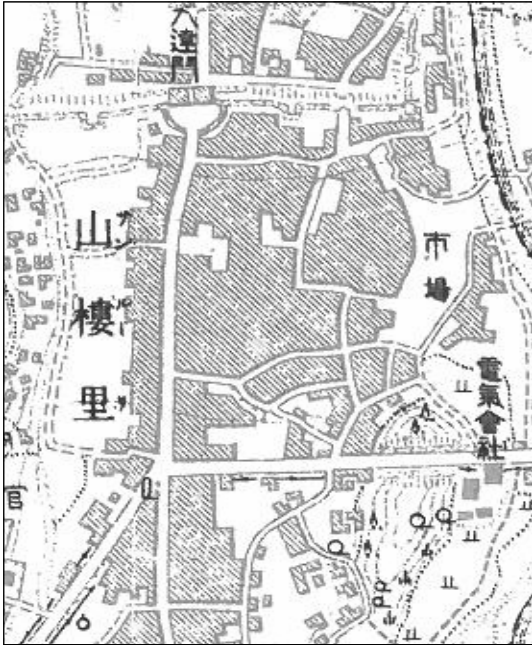
수원은 정조의 수원성 축성 이후 주목받는 도시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 융성한 도시로 인식되지 못했다. 수원은 일제의 정책적 육성에 의해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들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통과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보급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수원은 규모가 작은 도시에 비해서도 한참 열악한 상황이었다.

가령 경성 인근의 인천에는 애관을 비롯하여 표관, 고무기좌, 흑룡관 등의 극장이 들어서 있었기에, 인천은 각종 공연단체의 방문이나 자생적 예술 문화의 발원이 가능할 정도로 문화·예술적으로 봄비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원의 처지는 완전히 달랐다. 수원은 자체 문화의 개발 사례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늘 문화예술 분야에서 열악한 편이었다.

수원극장의 등장은 이러한 수원(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수원인들은 수원극장을 중심으로 타 지역의 문화를 수입하고, 타 지역민과의 교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고유성을 복돋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의도가 온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닐지라도, 수원극장의 이러한 확대와 제고 기능은 수원 문화예술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원극장의 역할은 비단 문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극장이 들어선 일대 주변 환경은 경제적·민족적으로 일본(인) 중심 구역이었다.

**Figure 4** \_ Map of the Paldalmun Area in Suwon Around 1917(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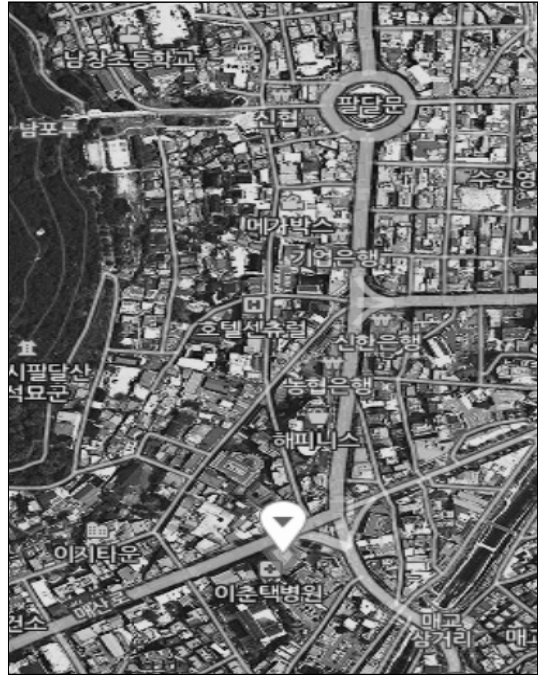
Sour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ds. 1917.

<Figure 4>는 수원 팔달문 밖 산누리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이 지도의 간행(기록) 시점은 1917년으로, (주)수원극장이 아직 설립되기 이전이다. 하지만 수원좌로 불렸던 전 수원극장 역시 '수원성 외 사거리(水原城外四距離)'에 존재했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위의 지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수원극장 건물은 교동 128(-2)번지에 위치하여 개인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 이 자리에 (주)수원극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Figure 5>의 교동 지도가 그것이다. <Figure 5>를 참조하여 <Figure 4>에 견주어 보면, 수원극장은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는 사거리의 한 축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은 교동사거리에서 팔달문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사진의 제작 연대는 1930년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후반의 풍경에 가깝다. 널리 알려진 이 사진은 팔달문 밖 '문밖마을'의 시작

**Figure 5** \_ Currently, Kyungdong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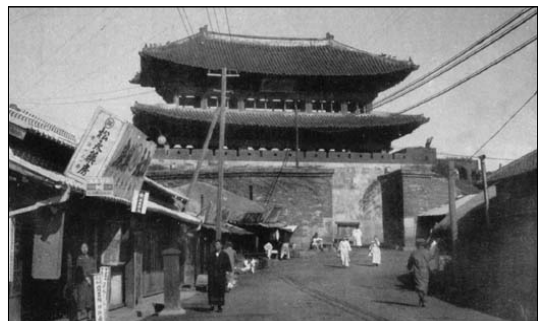


Source: Naver Map. <http://map.naver.com/>

(점)을 알리는 정경을 담고 있다. 수원극장 측에서 팔달문을 바라볼 때, 일본인 상점의 거리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정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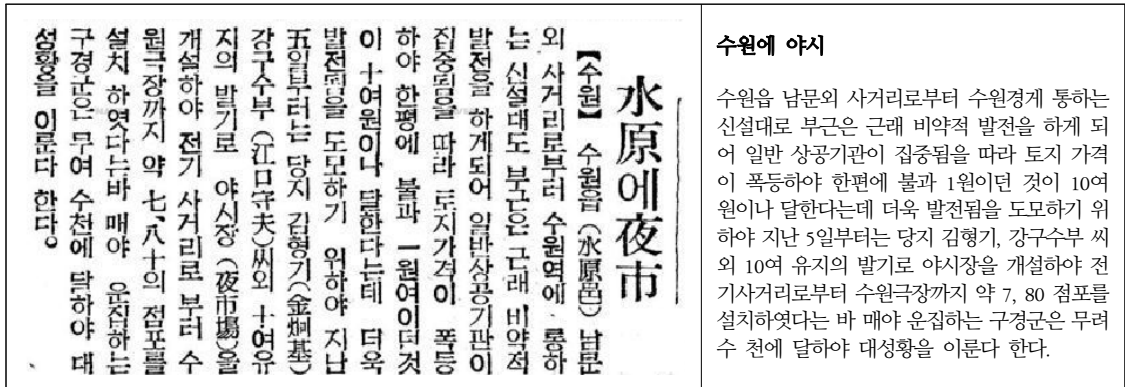
(주)수원극장의 위치는 이러한 상점거리가 일차적으로 마감되는 시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로의 출발점에 해당하였다. 즉 팔달

**Figure 6** \_ Scenery of Shops in front of Paldalmun in the 1930s



Source: Suwon Ilbo 2010.

Figure 7 \_ Newspaper Article on Night Market Developed by Eguchi Morio and Kim Hyungki



Source: Dong-A Ilbo 1934.

문 바깥의 성세가 수원역의 옥일승천하는 형세와 만나는 지점인 셈이다.

실제로 팔달문의 외벽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던 남용성이 철거된 해는 1929년이다. 그 이후 시가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팔달문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본인 상점이 즐비하다. 당시 에구치 모리오(江口守夫)는 그 일대의 상권을 좌우하는 유력자였는데(동아일보 1929e), 그는 당국(일제)과 협력하여 팔달문 밖에서 수원극장에 이르는 거리를 변화한 상점(전포)의 거리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상점과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수원의 경제력과 인종적 우세를 획책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원극장은 이러한 도시구조 혹은 자본 재편의 구도에서 조선인의 경제권을 지켜주며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극장이었다. 특히 수원극장이 교동사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선점함으로써 조선인 관객뿐만 아니라 구매자, 판매자, 거간, 행인 등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다. 수원극장의 힘은 의외로 팔달문 외성 바깥 상점가에서의 위상으로 결정되었다.

기사와 사진을 인용한 <Figure 7>에서도 확인되듯, 팔달문 바깥은 수원의 중심가 중 하나였는데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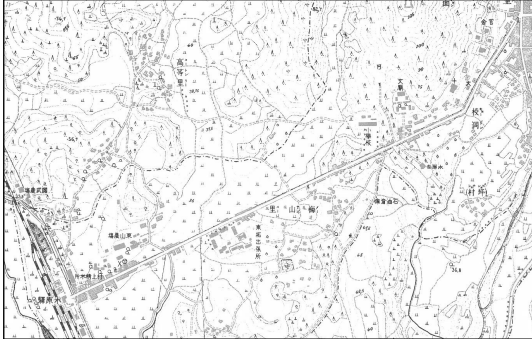
한 도시구조는 결국 교통의 편의와 당국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무엇보다 수원극장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주목되는 이유는 물리적·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극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파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동사거리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이다. 처음에는 <Figure 8>의 지도처럼 수원역과 교동사거리 사이에는 전답이 주로 위치하고 있었지만, 수원역의 변성은 이 거리를 점차 수원 최고의 변화가로 이끌었다(<Figure 9> 참조). 수원역이라는 신흥 상권과 팔달문 바깥 문밖의 교차지점에 수원극장이 위치한 셈이다.

이러한 위치는 수원 상권과 이에 보조를 맞추는 문화적 영역에서 수원극장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㉞)수원극장이 새롭게 개축되고 또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수원극장의 위치가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수원의 지역민들은 이 거리를 이동하고 또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원극장에 들르며 그 활용도를 생각할 수 있었다. 공연(영상) 콘텐츠의 자연스러운 공개와 선전이 가능했고, 자신의 기예를 펼치려는 제작(창작)자들에게는 공용의 공간으로 상정되었다. 물론

**Figure 8** \_ Road from Kyodong Intersection to Suwon Station



Sour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ds. 1917.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펴거나 공용의 공간을 요구할 때에도 수원극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수원극장의 기능과 역할(용도)

수원극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그 용도에 따라 크게 연극 공연장, 문화행사장, 상업적 대화장, 영화(활동사진) 상영관, 그 밖의 다목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연극 공연장으로서의 수원극장은 수원 내에 전문극단이 부재했던 관계로 소인극 공연장으로 이용되거나, 대외 방문 극단의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문화행사장으로서 수원극장은 수원을 방문하는 각종 단체의 요긴한 무대로 기능하였으며, 영화 상영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수원 주민들의 행사와 생활에서의 중요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인극 공연장으로서 수원극장

수원극장은 수원 지역민들의 공용 공간이었던 만큼, 1920년대부터 소인극 공연장으로 즐겨 활용되었다.

**Figure 9** \_ Landscape of Suwon S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urce: Official Blog of Suwon Museum. <http://swmuseum.blog.me/220491673707>.

부인관객우다(婦人觀客尤多) 수원교회주보사주최  
(水原教會週報社主催) 소인극대회(素人劇大會)

수원교회주보사 주최로 지난 28, 29 이틀 동안 예술구락부 후원으로 소인극대회를 수원극장에서 개최하였다는데 수원에서는 종교단체로서 이와 가튼 연극의 주최는 처음되는 일이라 일반 인사는 만흔 흥미를 가지고 입장을 다투어 관람자는 매일 무려 3~400명에 이르렀었다하며 더욱 부인이 남자보다 만히 입장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고(수원)동아일보 1924).

수원극장이 개관하였지만, 소인극 공연 같은 일반인들의 극장 활용이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1924년 종교단체로는 최초로 수원교회(주보사)가 수원극장에서 소인극 공연을 시도하였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던 만큼 이러한 시도는 모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외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원극장을 방문했다. 종교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일반인들은 이를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원지역의 문화적 향유 욕구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소인극 공연은 종교단체의 조직이나 설법을 위해서도 애용되었지만, 주로 지역 청년회 활동을 자극하고 그 영향력을 파급하는 활동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수원극장 역시 1924년에 이러한 공연을 개최한 기록이 발견된다.

수원청년회는 1924년 6월 8~9일 양일간 소인극 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청년회가 소인극 대회를 열고자 다년간 노력했지만[수원청년회의 ‘숙망(宿望)’ 여러 방해[지장(支障)]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때가 되어서야 소인극 대회 개최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조선일보 1924)]. 1924년 이전까지 소인극 대회를 방해한 요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1924년 소인극 대회 공연 예제 중 ‘각본대로 연행치 못한 작품이 있다는 언급을 감안하면, 작품 공연을 둘러싼 일제의 검열과 충돌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수원청년회가 공연한 작품 중 문제가 된 예제는 ‘영아(嬰兒)애(의) 시(屍)’였다. 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당시 ‘현대 무산자의 상황을 연출하여 관중에 무한한 감상(感想)을 주어 일반 제씨의 동정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조선일보 1924). 이러한 평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조선사회의 가난과 궁핍상을 그려낸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의 개요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영아의 사’는 유마모토 유조(山本有三)의 ‘에이지코로시(嬰兒殺し)’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존재하는 작품이다. 토월회는 1924년 7월(3~5일)과 1925년 4월경(4월 30일~5월 6일)에 이 작품을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는데(문한성 1987, 115-117), 내용상 영아살해와 그 시체가 모티프가 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유사하고(김남석 2014, 12-13), 시기적으로도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의 영향력이 감지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김재석은 토월회가 ‘에이지코로시’의 공간적 배경을 ‘조선’으로 전환하여 공연했지만, 상대적으로 작품 내용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김재석 2014, 321-322).

이러한 견해를 참조할 때, 1920년대 중반 조선의 청년들은 ‘에이지코로시’를 조선의 상황으로 변안하는 작업에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수원청년회가 도전하였다가 검열에 제약을 당한 작품이 ‘에이지코로시’라면, 수원극장의 공연 역시 일제의 검열에 침해를 받기는 했지만 무산계급의 입장과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극장에 모인 ‘자발성 높은 관객(김재석 2013, 55-57)’들은 조선의 비극적 운명과 영아의 시체가 드러난 상황을 연결시켜 스스로를 이해하는 상황을 창출할 수 있었다.

수원극장에서의 소인극은 비단 지역 청년들의 여가 문화활동의 일환에 그치지 않고 당시 관객과 대중들에게 조선의 현실을 알리는 증좌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수원극장에 모인 지역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이 공연 이후에 많은 기부금이 회사된 상황은 이러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수원청년회는 강연회 등의 활동을 통해 민중의식 고취에 주력하는 단체였다(매일신보 1922d). 1925년에도 수원청년회의 소인극 활동이 이어진다. 1925년 2월, 수원청년회는 음력 정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극장에서 소인극을 공연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참관을 촉구했다. 당시 수원청년회가 소인극 예제로 준비한 작품은 10여 가지였는데, 그중에는 ‘심청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동아일보 1925d).

1928년 조선(관북) 지역을 덮친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이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수

원 역시 이를 위해 네 개의 단체(수원신간회지회, 수원 청년회, 인공친목회, 학생친목회)가 연합하여 ‘관북수해구제동정극’ 공연을 결정하였다(동아일보 1928i). 1928년 당시 수원에서의 각종 집회나 행사는 경찰 당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사 역시 개최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수익을 얻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동정극 공연의 여배우에 대한 단서가 노출된 점이다. 연극은 소인극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배우는 기생 가운데 선출하여 대중의 흥미를 높이고자 했다. 배역을 맡은 여배우의 이름은 강초선(姜楚仙), 박옥선(朴玉仙), 한비(韓飛)였다.

한편 소인극 공연단체 중성극우회(衆聲劇友會)는 신극 단체였던 수원거화회(水原炬火會)의 후신 격인 단체로 1929년 4월에 첫 공연을 기획하였는데, 첫 공연 무대가 수원극장이었다(동아일보 1929c). 지역 연극인들이 모여 전문 극단과 소인극단 사이의 중간 단체를 결성하고 그 의의를 널리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많은 극단들이 이러한 경로를 밟아 지역 연극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극장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극장을 고른다는 점이다. 일례로 원산지역의 산양회(山羊會)를 들 수 있다. 산양회는 1928년 1월에 원산관이 설립되자,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공연하고자 했다(동아일보 1928b). 원산의 산양회나 수원의 중성극우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연극계 혹은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의 동태와 의식구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외부극단(공연 단체) 방문지로서 수원극장

수원극장을 방문한 단체는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방문공연 혹은 순회공연을 목적으로 수원을 방문한 단체에 대해 살펴보고, 수원극장 내에서의 공연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재구해 보도록 하자.

1925년 1월 월간잡지 예우사의 부속 극단인 문화극단이 수원극장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문화극단은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공연하였고, 관중들의 ‘갈채(喝采)’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25a). 수원을 방문한 예우사는 1922년 3월에 설립된 화류계 관련 조직이었다.

예우사의 설립자는 최성원과 김진중(金進重)으로, 이들은 화류계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 월간잡지 ‘예우’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매일신보 1922b). 그리고 이 월간잡지 ‘예우’의 부속 기관으로 문화극단을 조직했는데, 이 문화극단이 1925년 수원극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단행한 것이다.

문화극단은 1923년경부터 자취를 드러내며 수해구제 연주(평양제일관)(조선일보 1923b), 합동공연(민중극단·신극좌와 공동으로 경성 조선극장 공연)(조선일보 1923c), 천민극단과의 합동공연(인천가무기좌)(조선일보 1923d) 등을 추진하면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1923년의 지방 공연활동을 참조하면, 문화극단이 당시의 일반적인 신파극단과 마찬가지로 지방 순회공연에 익숙한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수원은 예우사의 주필인 김진중의 향계(鄉第), 즉 고향집이었다(매일신보 1922a). 1920~1921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김진중(金進重)이라는 인물이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서기과 ‘서기(書記)’이자 ‘통역생(通譯生)’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이 김진중이 예우사의 주필 김진중과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김진중은 수원 거부였던 박재운의 유산을 상속받아, 수원을 근거지로 한 자산가의 반열에 올라선 바 있다(매일신보 1924). 따라서 문화극단은 수원에 지역적 연고를 확보

한 극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에 순회극단 공연처로 수원극장을 선정한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1928년 3월에는 조선극우회가 순회공연을 펼쳤는데, 애초에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공연할 예정이었다. 공연이 시작된 후 수원의 유치원이 재정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조선극우회 측은 19일 공연을 동정공연으로 기획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동정금을 회사받기도 했다(동아일보 1928d).

수원극장을 방문한 극단으로는 1920년대 최고의 흥행 극단 가운데 하나인 취성좌도 포함되어 있다. 취성좌는 1928년 4월 수원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이와 함께 축구대회도 치렀다. 취성좌의 축구팀과 수원 '화성구락부(華城俱樂部)'의 축구팀은 수원청년구락부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펼친 바 있다(동아일보 1928e).

예동경지부(藝東京支部) 푸로극장이 진 조선 순회 공연을 나서며 공연 예정지로 수원을 거론하였는데, 수원에서의 공연장은 수원극장으로 추정된다(동아일보 1929d).

1929년에는 배구자악극단이 수원극장에서 순회공연을 시작하여, '아리랑'과 '물 깎는 처녀' 등의 순조선무용을 공연하였고, '잠자는 산'을 비롯하여 20여종의 가극을 공연하였다(동아일보 1929f).

조선무용 '아리랑'은 1928년 4월 배구자가 조선연예제로 복귀할 때 선보였던 작품으로, 조선의 음악을 무용화한 작품이다(매일신보 1928). 이후 배구자는 1929년 수원극장 공연에서 이 '아리랑'을 으뜸 공연예제로 제시했고(동아일보 1929f), 이후 자신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로 삼았다(매일신보 1935). 배구자가 서양무용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거두기 시작한 시점은 1931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매일신보 1931). 1928년 복귀 공연에서 '아리랑'을 선보인 것도 이러한 단초를 보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극장에서 배구자가 선보인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3) 대내외 문화행사장으로서 수원극장

1924년 하와이 학생 환영행사에서도 수원극장은 중요한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수원극장의 주용도는 하와이 학생 연주단의 음악 공연장이었다. 이와 비슷한 행사가 1922년 7월에도 개최된 바 있다. 송진우가 이끄는 '재외동포위문화'가 전국 순회에 나섰고, 대전을 거쳐 수원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이때에도 하와이 학생 환영행사와 유사한 환영 일정이 진행되었다. 수원을 대표하는 '김세환'의 환영사와 '송진우'의 답사가 교환되고, '방화수류정'에서 수원 전경을 조망한 후, 수원극장에 입장하는 순서였다(동아일보 1922b).

이 행사에서 수원극장은 개회사, 독창, 합창, 취지 낭독, 합주(삼현금), 강연 등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가창과 연주 등의 음악 관련 행사장이면서, 동시에 환영행사의 식장이자 강연장으로 사용되었다. 1920~1930년대의 강연은 지역의 문화행사에서 선호되는 예제였으며, 음악행사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했다. 따라서 수원극장은 1920~1930년대 공연 관례에 따라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다목적 공연의 궁극적인 목적인 친목과 교류의 장, 즉 환영식장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외 행사장으로서의 수원극장의 입지는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더욱 확산되면서 수원 내 지역 단체들의 행사장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27년 수원학생친목회의 창립 10주년 기념공연을 계획하면서, 수원지역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행사 전반을 기획 공연하였다. 이때 행사장소로 물색된 곳은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수원청년회운동회

장이고, 다른 하나가 수원극장이었다.

수원극장에서는 주로 음악 연주와 소인극이 공연되었다. 당시 공연 예제를 보면, ‘오해된 가정(무언극)이 소인극으로 공연되었고, ‘천연의 마라는 유희와 하모니카 합주(‘금잔디화), 마지막으로 ‘함(檻)(희극)이 공연되었다. 수원학생친목회의 기념행사는 개별적으로 보면 일개 단체의 행사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원의 주요 단체가 관여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극장은 이러한 행사장으로는 공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수원학생친목회는 11주년 행사도 수원극장에서 ‘음악극 대화로 치렀다. 특히 11주년 창립 행사에서는 ‘영우회(수원 여성 운동 단체)와 지역 신문사(동아일보사)가 후원을 맡아, 한 단체의 자치 행사를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하고자 하였다(동아일보 1928g). 특히 1928년 8월 행사는 그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동아일보 1928h). 이는 수원극장에서 열린 행사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원극장이 견지했던 공연문화 수용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Table 1>에 따르면 식순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4까지는 개회 공식 의식이다. 당시 신문에서도 여기까지가 ‘일부(一部)의 ‘식(式)’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연예부(演藝部)에 해당하는데, 5~7에는 춤과 노래 위주의 공연 예제가 주로 배치되었다. 반면 8~9는 주로 극 장르로 구성되어서 연예부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음악과 춤이 서두에 배

치되고, 연극류는 주로 말미에 배치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동정금 모금인데, 이 행사에서는 모금을 다소 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객들은 통상적인 행사에서 관례처럼 따르던 모금행사를 자청해서 수용했다. 당시 신문에서는 관객들이 ‘자진하여 무대 뒤에까지 와서’ 동정금을 쾌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동정금 쾌척은 때로는 분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가령 한재와 수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린 한성권번 기생연주회에서 동정금 투척에 항의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9a). 그만큼 동정금은 관습적인 형태로 대내외 행사의 일부가 되었지만, 동정금이 실질적인 수익의 형태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분쟁의 여지를 함축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령 공연 주체가 자신들의 이익(화성권번의 경우 시설 확충)을 위

**Table 1** \_ Order of the Event of Suwon Student Social Gathering

Number	Event Sequence	Title of the Work	Performer and Contents
1	Group Song	Musoedari Soepalttung Sonyeondeura	Opening Song
2	Opening Address		
3	Congratulatory Speech		Kong Seokjeong
4	Speeches of Answers		Seo Byeongsu
5	Prelude of Entertainment Group	Pantomime Drama Arirang	Spectators Begin to Focus
6	Dancing	Dancing Seagull	Kim Okbae
7	Music	Play more than 10 Kinds of Music	
8	Theater Genre	Theater Poor Sacrifice (Act 2)	
9	Theater Genre	Farce Completely Destroyed(Act 1)	
10	Donation	Fund Raising	Despite Police intervention, recruiting 40 won(choseon dollar)

Note: This table is the result of summarizing the order of events of Suwon Student Social Gathering.

해 동정금을 거둘 경우, 이러한 동정금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정금은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불미스러운 문제를 남기는 자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사 기획은 여러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사한 행사로 1928년 5월의 수원소년군 주최 ‘음악무도대회’, 1929년 2월 화성권변 주최 ‘기생연주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류의 공연 예제를 혼합하여 20여 종의 순서로 짜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동아일보 1928f, 1929a). 오락거리를 찾는 수원 지역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환영했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동정금이나 후원금을 투척하면서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사는 비단 수원만의 형식은 아니었고, 1920~1930년대 조선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수원에서는 수원극장이 이러한 문화 욕망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즉 대외 행사장 혹은 지역주민 문화 위안처로서의 수원극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4) 활동사진 공연장으로서 수원극장

수원지역에서 활동사진(영화) 상영관이 별도로 존재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1920년대에는 상설 활동사진관이 없었으므로 수원극장은 이러한 활동사진관으로서의 역할도 대행했다.

1925년 2월에는 수원 삼일학교가 경비 문제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돕기 위해서 후원동정과 의연금 모금행사가 기획되었고, 그 기획행사의 일원으로 1925년 2월 3일과 4일에 수원극장에서 활동사진 영사를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동아일보 1925b). 동정과 후원을 위한 연주나 활동사진 영사 등의 행사는 관련 집회나 활동을 촉발하는 일종의 문화적 계기에 해당

한다. 수원극장은 수원 주민들의 집회와 후원을 위해 영화라는 당대의 대중문화를 활용하기로 한 셈인데, 이러한 후원활동은 동시에 수원 주민들에게 영화라는 대중 예술을 선보이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다.

1927년 3월에도 수원소년군과 수원청년회는 동아일보사의 후원을 바탕으로 수원극장에서 활사대회를 열었다(동아일보 1927). 이 대회는 구경거리를 위한 수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대회였다.

1928년에도 활사대회는 인기 있는 수원의 행사로 개최되었다. 사립의법학교 교사(校舍) 신축을 위한 기금 모집 행사 팀이 수원을 제1차 모집처로 결정하고 수원극장에서 활동사진 대회를 개최하여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28a). 1929년에도 수원극장은 활동사진을 상영하였다(동아일보 1929b). 다만 수원극장은 1920~1930년대에는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으로는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기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수원극장의 현재적 의미

수원은 1930년대에 이미 주목받는 극장을 소유할 수 있었다. 수원극장은 일제강점기 수원 유일의 극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지역극장 중 하나였다. 특히 수원극장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어 한국 연극영화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행정의 제반 업무 장소로도 기능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 2000년대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수원극장은 단순히 물리적 폐쇄나 철거를 당한 건물로 남지는 않았다. 수원극장은 수원을 대표하고 수원의 연극을 촉진하며, 때로는 수원의 극장 인프라를 자극·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수원극장이 지니는 정신사적 영역은 상당한 부피를 남

졌다.

우선 수원극장은 수원의 얼굴로 기능하면서 일제강점기 수원을 대표하여 각종 행사를 치르는 극장으로 명망이 높았다. 수원을 찾는 외부인사—가령 강연자, 외부 극단, 공식 초청손님, 수원 지역 단체에서 초청한 귀빈, 외국인, 혹은 정치인—들은 수원역에서의 환영 마중과 방화수류정 방문을 거쳐 수원극장에서 열리는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이러한 절차와 환영행사는 수원극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음악과 무용, 토론과 강연, 그리고 연극과 영화가 결집된 종합적인 환영행사—의 충족 요건을 증강시켰다. 수원극장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인사들과 귀빈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했다. 때로는 아마추어 수준의 단체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예술적 자극이 필요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자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원극장은 외부 단체의 방문 공연장이었다. 많은 문화예술 단체가 이 극장을 순회 루트로 활용하였다. 수원을 거쳐 남하하는 극단 혹은 단체들은 수원에서의 독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극장을 활용했다. 다시 말해서 수원은 개성이나 청주처럼 상당한 인구를 지니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의 보급률이 저조해서 수원극장이 유일한 공연(상연)장에 해당했다. 따라서 수원극장에서의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수원 지역민들이 외부(특히 경성이나 일본)의 연극을 견학하고 탐사하는 장으로 수원극장이 활용되었다.

수원극장이 외부 단체들에 의해 각광받는 극장이었다는 점은, 이 극장이 문화예술의 창구였다는 점을 증언한다. 수원의 지역 연극인들이 다소 늦게 각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

역 내에서 선진 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원극장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극장은 단순한 극장이기보다는 문화적 대외 의존을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수원극장은 수원의 유지와 명망 있는 사업가가 공들여 일으키거나 경영했던 사업체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수원을 움직이는 지역 인사들은 수원극장 건립의 발의부터 축조, 그리고 완공 운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한 바 있다. 특히 수원의 유력 가문이자 영향력 있는 사업가 홍사훈(남양 홍씨)이 수원극장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점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각 지역은 일본의 문화자본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다. 함흥과 원산에서는 일본인 극장을 피해 조선인 극장(검 공회당)을 짓자는 결의가 넘쳤고, 개성이나 청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극장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부산처럼 일본 극장의 독점 가운데 조선인 극장이 세워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이를 피해 울산 등지에서 조선인 자본에 의한 극장 건립이 온건하게 수용되는 사례도 발굴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에서는 조선인 거주지역과 일본인 거주지역이 분리 확정되면서 점차 두 나라의 인종·국가·문화적 차이에 의한 지역별 분할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인 거주지역의 일본인 극장은 일본인이 경영했고, 조선인 거주지 내에는 조선인의 의사와 편의를 고려한 조선인 극장을 짓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양태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공용의 것이었으며, 비단 상업 추구나 이윤 파생 외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이어야 했다. 수원극장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수원이라는 도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소)극장

의 역사는 다소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수원극장이 1930년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전까지 역사를 소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 수원의 극장은 단 하나에 그치고 말았다. 광복 이후 이러한 단일 극장 역사에 변화가 찾아오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극장의 부족은 극장 문화 혹은 공연단체의 확대와 심화를 방해하는 제약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극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수원의 공연문화와 관련 단체는 더욱 풍성한 활동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수원 극장 문화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수원극장이 지니는 의의가 도출된다. 수원극장은 수원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맥락을 지켜온 일종의 예술적 보루였지만, 동시에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극장이 부재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유효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극장의 기능이 다양한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특징임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이 가져온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극장의 중요성과 문화적 심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수원극장이 유구한 극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그 기능을 다른 극장(해방 이후 설립된 수원의 여타 극장들)에게 이전한 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사실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수원극장이 장차 수원의 문화적 '옴팔로스(Omphalos)'로 재탄생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복원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서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살펴본 과거 사례에 대한 관찰(극장의 설립과 운영, 설립자와 운영자, 설립 방식과 운영 정책)은 중대한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수원 자체의 연극적 자생력을 더욱 높이고 서울 연극과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의 확대와 보완을 위해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극장 활용 사례를 보면, 극장은 공용의 공간이었고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극장은 외관과 경영에서 새로움의 원칙을 따라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공동의 자신임을 기억하는 운영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에 설립되는 극장이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극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발견과 확대가 동시대에서 수원극장의 실제적 의미(복원)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경향신문. 1957. 기자석(記者席). 10월 6일, 1면.  
*Gyeonghyang Simmun*. 1957. A journalist's seat. October 6, 1.
2. 고설봉. 1990. 증언 연극사. 서울: 진양.  
Go Seolbong. 1990. *Testify to the Theater*. Seoul: Jinyang.
3. 고일. 2001. 인천석극. 인천: 해반.  
Go Il. 2001. *Yesterday and Today of Incheon*. Incheon: Haeban.
4. 경남도민일보. 2015. 일제 침탈에 다시 눈 뜬 300년 항왜 정신.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3329> (2017년 9월 20일 검색).  
*Gyeongnandomin Ilbo*. 2015. Anti-Japanese spirit awakened by Japan's forced invasion. (accessed September 20, 2017).
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수원: 기전문화재연구원.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0.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Suwon*. Suwon: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6. \_\_\_\_\_.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 수원시. 수원: 기전문화재연구원.  
\_\_\_\_\_. 2007. *Map of Cultural Heritage Distribution: Suwon*.

- Suwon: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7. 김남석. 2014. 1920년대 극단 토월회의 연기에 대한 가설적 탐구. *한국연극학* 53호: 5-30.  
Kim Namseok. 2014. 1920's theater Towolhoe acting about hypothetical study. *Korean Drama Studies* 53: 3-30.
  8. 김재석. 2013. 형성기 한국 근대극에서 <김영일의 사>의 위치. *한국연극학* 50호: 39-67.  
Kim Jae-suk. 2013. A study on the location of 'Kim Youngil's Death' in the formative period of Korean modern drama. *Korean Drama Studies* 50: 39-67.
  9. \_\_\_\_\_. 2014. 토월회의 번역극 공연인식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8호: 297-335.  
Kim Jae-suk. 2014. The performance understanding and its meaning of Towolhoe's translated drama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68: 297-335
  10.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2017년 9월 14일 검색).  
Naver Map. <http://map.naver.com/> (accessed September 14, 2017).
  11. 동아일보. 1920. 수원청년구락부(水原靑年俱樂部) 조직. 6월 12일, 4면.  
*Dong-A Ilbo*. 1920. Organize a youth meeting in Suwon. June 12, 4.
  12. \_\_\_\_\_. 1921. 고학생극단 수원착(水原着). 8월 23일, 4면.  
\_\_\_\_\_. 1921. Difficulty students visit Suwon. August 23, 4.
  13. \_\_\_\_\_. 1922a. 수원기생 차선극. 5월 7일, 4면.  
\_\_\_\_\_. 1922a. Suwon's prostitutes play a role to help people. May 7, 4.
  14. \_\_\_\_\_. 1922b. 재외동포위문회. 7월 14일, 3면.  
\_\_\_\_\_. 1922b. Meetings that meet overseas Koreans. July 14, 3.
  15. \_\_\_\_\_. 1923a. 포와학생단 도처 대환영. 8월 21일, 4면.  
\_\_\_\_\_. 1923a. Welcome Hawaii students. August 21, 4.
  16. \_\_\_\_\_. 1923b. 하와이 학생단 체평(滯平) 중 일정. 7월 25일, 3면.  
\_\_\_\_\_. 1923b. Schedule of Hawaii students to stay. July 25, 3.
  17. \_\_\_\_\_. 1924. 부인관객우다. 8월 2일, 3면.  
\_\_\_\_\_. 1924. The female audience is gathering together. August 2, 3.
  18. \_\_\_\_\_. 1925a. 문화극단 흥행. 1월 23일, 5면.  
\_\_\_\_\_. 1925a. Show of Munhwageukdan. January 23, 5.
  19. \_\_\_\_\_. 1925b. 삼일학교 폐교 운명. 2월 2일, 3면.  
\_\_\_\_\_. 1925b. Closing Samil-school. February 2, 3.
  20. \_\_\_\_\_. 1925c. 소인극 흥행. 2월 7일, 3면.  
\_\_\_\_\_. 1925c. Show of non-professional theater. February 7, 3.
  21. \_\_\_\_\_. 1925d. 수원청년연극. 2월 7일, 3면.  
\_\_\_\_\_. 1925d. Theater of young people in Suwon. February 7, 3.
  22. \_\_\_\_\_. 1925e. 수원기생맹휴. 2월 26일, 2면.  
\_\_\_\_\_. 1925e. The prostitutes of Suwon are closed down. February 26, 2.
  23. \_\_\_\_\_. 1925f. 수재동정금. 9월 29일, 6면.  
\_\_\_\_\_. 1925f. Donations to help flood victims. September 29, 6.
  24. \_\_\_\_\_. 1927. 소년군 활사회. 3월 16일, 3면.  
\_\_\_\_\_. 1927. Boy Scout Movie Festival. March 16, 3.
  25. \_\_\_\_\_. 1928a. 수원독자우대 구(舊) 1~2 양일간. 1월 24일, 4면.  
\_\_\_\_\_. 1928a. During the first and second days of the past two days, newspaper readers of Suwon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January 24, 4.
  26. \_\_\_\_\_. 1928b. 산양회 공연. 2월 1일, 4면.  
\_\_\_\_\_. 1928b. Performance of Sanyanghoe. February 1, 4.
  27. \_\_\_\_\_. 1928c. 수원잡신. 2월 7일, 4면.  
\_\_\_\_\_. 1928c. Suwon News. February 7, 4.
  28. \_\_\_\_\_. 1928d. 유치원동정극 조선극우회서. 3월 23일, 4면.  
\_\_\_\_\_. 1928d. Play in kindergarten by Choseongeuguhoe. March 23, 4.
  29. \_\_\_\_\_. 1928e. 화구(華具) 대(對) 취성(聚星) 축구. 4월 7일, 4면.  
\_\_\_\_\_. 1928e. Soccer game of Hwagu and Chwiseong. April 7, 4.
  30. \_\_\_\_\_. 1928f. 수원 음악 성황. 5월 9일, 4면.  
\_\_\_\_\_. 1928f. Music performance in Suwon. May 9, 4.
  31. \_\_\_\_\_. 1928g. 하기휴가를 이용. 8월 6일, 4면.  
\_\_\_\_\_. 1928g. Take advantage of vacation. August 6, 4.
  32. \_\_\_\_\_. 1928h. 음악극대회 십일주년 기념. 8월 13일, 3면.  
\_\_\_\_\_. 1928h. Music contest for the 11th anniversary. August 13, 3.
  33. \_\_\_\_\_. 1928i. 참담한 한수재와 각지 동포의 동정. 10월 21일, 3면.

- \_\_\_\_\_. 1928i. Disastrous drought and flood, Situation of Korean nationwide. October 21, 3.
34. \_\_\_\_\_. 1929a. 오전 짜리 동정(同情) 기생연주회에. 2월 14일, 2면.  
\_\_\_\_\_. 1929a. Cheap concerts by prostitutes. February 14, 2.
35. \_\_\_\_\_. 1929b. 수원절도범. 3월 3일, 5면.  
\_\_\_\_\_. 1929b. A thief in Suwon. March 3, 5.
36. \_\_\_\_\_. 1929c. 중성극우회 공연. 4월 25일, 4면.  
\_\_\_\_\_. 1929c. Performance of Jungseonggeuguhoe. April 25, 4.
37. \_\_\_\_\_. 1929d. '푸'에동경지부(藝東京支部) 푸로극장. 7월 16일, 3면.  
\_\_\_\_\_. 1929d. Socialist theater in Tokyo. July 16, 3.
38. \_\_\_\_\_. 1929e. 12부23면(十二府廿三面) 협의원(協議員). 11월 22일, 7면.  
\_\_\_\_\_. 1929e. 12 Part 23 Province Consultative Committee (Consultant). November 22, 7.
39. \_\_\_\_\_. 1929f. 배우자극단 수원에서 공연. 12월 2일, 3면.  
\_\_\_\_\_. 1929f. Performance of Baegujagageukdan in Suwon. December 2, 3.
40. \_\_\_\_\_. 1930. 만여원 기본금 어든 화성학원(華城學院) 서광. 1월 23일, 3면.  
\_\_\_\_\_. 1930. Hope of Hwaseong Academy which secured 10,000 won. January 23, 3.
41. \_\_\_\_\_. 1931. 눈물에 저즌 동포들의 선물. 11월 28일, 5면.  
\_\_\_\_\_. 1931. A gift from overseas Koreans who shed tears. November 28, 5.
42. \_\_\_\_\_. 1933. 사슴제도 폐지 농자(農資)도 융통. 9월 12일, 2면.  
\_\_\_\_\_. 1933. The middle management system will be abolished and agricultural capital will be flexible. September 12, 6.
43. \_\_\_\_\_. 1934. 수원(水原)에 야시(夜市). 8월 15일, 4면.  
\_\_\_\_\_. 1934. Night market in Suwon. August 15, 4.
44. 매일신보. 1922a. 인사소식. 3월 23일, 2면.  
*Maeil Sinbo*. 1922a. Move personnel. March 23, 2.
45. \_\_\_\_\_. 1922b. 예우사 설립. 3월 23일, 3면.  
\_\_\_\_\_. 1922b. Establishment of Yeywu company. March 23, 3.
46. \_\_\_\_\_. 1922c. 수원예기 미거. 5월 9일, 3면.  
\_\_\_\_\_. 1922c. Suwon prostitutes do good works. May 9, 3.
47. \_\_\_\_\_. 1922d. 청년연합강연. 12월 1일, 3면.  
\_\_\_\_\_. 1922d. Young people are speaking together in a joint. December 1, 3.
48. \_\_\_\_\_. 1924. 수원 박씨의 유산 문제, 그 사위가 승소. 9월 4일, 3면.  
\_\_\_\_\_. 1924. Suwon Park's heritage inheritance problem, the son-in-law finally wins. September 4, 3.
49. \_\_\_\_\_. 1928. 배우자 양 독연 순서 조연도 만타. 4월 20일, 2면.  
\_\_\_\_\_. 1928. Order of performing of Baegujaga, there are a lot of assistances. April 20, 2.
50. \_\_\_\_\_. 1931. 신미(辛未)의 광명(光明)을 차저(6). 1월 9일, 2면.  
\_\_\_\_\_. 1931. In search of the light of the Shinmi(6). January 9, 2.
51. \_\_\_\_\_. 1933. 수원금융총회 역원(役員)은 개선. 4월 25일, 4면.  
\_\_\_\_\_. 1933. Suwon Finance Union General Assembly, change members. April 25, 4.
52. \_\_\_\_\_. 1935. 신축낙성개관피로호화진. 11월 1일, 1면.  
\_\_\_\_\_. 1935. Opening ceremony. November 1, 1.
53. \_\_\_\_\_. 1937. 신록의 5월 3일 수원시민운동회 본보지국 후 원으로. 5월 28일, 3면.  
\_\_\_\_\_. 1937. May 3 of the fresh green, supported by Suwon Citizens' Movement Headquarters. May 28, 3.
54. 문한성. 1987. 토월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Moon Hanseong. 1987. *A Study of Towolhoe*. M.D. diss., Dangkook University.
55. 배석만. 2014. 해방 후 수원의 귀속기업체 불하와 지역경제.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편, 269-293. 수원: 수원시사편찬위원회.  
Bae Seokman. 2014. Suwon's corporate bonds and local economy after the liberation. In *Suwon's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ed.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69-293. Suwon: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56. 배선애. 2010. 대구경북지역(大邱慶北地域)의 문화(文化) 환경(環境)과 조선인(朝鮮人) 극장(劇場)의 로컬리티. 대구(大邱) 만경관(萬鏡館)을 중심(中心)으로. 대동문화연구 72권: 7-35.  
Bae Seonyae. 2010. Daegu-Gyeongbuk area's cultural environment and locality of Korean's theater-focused on

- Daegu "Mankyungwa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2: 7-35.
57. 수원박물관 공식블로그. 수원박물관 e야기. '문밖마을' 경부선의 개통과 문밖의 재발견. <http://swmuseum.blog.me/> (2017년 9월 20일 검색).  
Official blog of Suwon Museum. Suwon Museum e-story. 'Out of town' The opening of Gyeongbu line and rediscovery outside door. <http://swmuseum.blog.me/> (accessed September 20, 2017).
58. 수원시. 1956. 수원사진대관. 수원: 수원시.  
Suwon City. 1956. *Pictures of Suwon*. Suwon: Suwon City.
59. 수원일보. 2010. 왜 팔달문 주변에는 시장이 많이 모여 있을까. 4월 8일.  
*Suwon Ilbo*. 2010. Why is there a lot of market around Paldalmun. April 8.
60. 신선희. 2006. 한국 고대 극장의 역사. 서울: 열화당.  
Shin Seonhee. 2006. *History of Korean Ancient Theater*. Seoul: Yeolhwadang.
61. 양훈도. 수원의 극장과 대중문화. 수원의 문화와 예술.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편, 423-438. 수원: 수원시사편찬위원회.  
Yang Hoondo. Culture and art of Suwon. In *Suwon's Theater and Popular Culture*. ed.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423-438. Suwon: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62. 위경혜. 2010.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권: 37-77.  
Wee Gyeonghae. The placeness of movie theaters in colonial Korea: The case of the city of Kunsan, Chula provinc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2: 37-77.
63. 유민영. 1982. 한국극장사. 서울: 한길사.  
Yoo Minyeong. 1982. *History of Korean Theater*. Seoul: Hangilsa.
64. 이상우, 장동천, 김종진, 김현철, 박영산, 양근애, 이승희 외. 2013. 월경하는 극장들: 동아시아 근대 극장과 예술사의 변동. 서울: 소명출판.  
Lee Sangwu, Cang Tongchen, Kim Congcin, Kim Hyenchel, Pak Yengsan, Yan Gkunay and Lee Sunghuy, et al. 2013. *Crossing the Borders of East Asian Theaters: The change of art history and the modern theaters in East Asia*. Seoul: Somyeong Press.
65. 이승렬. 2013. 한말 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84호: 159-201.  
Lee Seungryul. 2013. The 'shock of moder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response of merchants in the Suwon area. *The Hyangto Seoul* 84: 159-201.
66. 이승순. 2014.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수원의 토지 소유 구조와 농업 경영.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편, 439-472. 수원: 수원시사편찬위원회.  
Lee Seonsoon. 2014. Establishment and activity of Yongsuheungnong Compan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Suwon's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Agricultural Management*. ed.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439-472. Suwon: Suwo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67. 이승희. 2010.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 함경도 지역 사례 연구. *대동문화연구* 69권: 209-220.  
Lee Sunghui. 2010. Theatre as public media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Joseon civil capital.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9: 209-220.
68. Yi-Fu Tuan. 2007.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 서울: 대운.  
Yi-Fu Tuan. 2007. *Space and Place*. trans. Gu Donghui, Sim Seunghui. Seoul: Daeyoon.
69. 조선일보. 1923a. 포와 학생 평양에 무사 도착. 7월 29일, 3면.  
*Choson Ilbo*. 1923a. Hawaii students arrive safely. July 29, 3.
70. \_\_\_\_\_. 1923b. 수해구제연주 신진문화극단 주최. 8월 20일, 3면.  
\_\_\_\_\_. 1923b. Concert for the victims of the flood by Shinjin Cultural Theater. August 20, 3.
71. \_\_\_\_\_. 1923c. 연극과 활동. 11월 14일, 3면.  
\_\_\_\_\_. 1923c. Theater and activities. November 14, 3.
72. \_\_\_\_\_. 1923d. 연극과 활동. 12월 8일, 3면.  
\_\_\_\_\_. 1923d. Theater and activities. December 8, 3.
73. \_\_\_\_\_. 1924. 수원 소인극대회 수원청년회 주최로. 6월 13일, 4면.  
\_\_\_\_\_. 1924. Festival of non-professional theater in Suwon. June 13, 4.
74. 中村資良. 1927~1941.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Nakamura Nori. 1927~1941. Korea Banking Corporation Association's Association. Kyeongseong: Dongagyongjesibosa.
75. 朝鮮總督府 편. 1917. 一万分一朝鮮地圖. 京城: 朝鮮總督府.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ds. *1/10th Minute Korea Map*. Kyeong Seong: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76. 최윤실, 남경숙. 2007. 근·현대 한국 영화극장의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권, 6호: 3-10.  
Choi Eyunsil and Nam Gyeongsuk. 2007. A study on the change of space in the korea theater of modern and present age. *AIDIA Journal* 16 no.6: 3-10.

7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http://db.history.go.kr/> (2017년 8월 1일 검색).  
Korean History Database. Employee records. <http://db.history.go.kr/> (accessed August 1, 2017).

78. 홍영철. 2014. 부산극장사. 부산: 부산포.  
Hong Yeongcheol. 2014. *Busan Theater History*. Busan: Busanpo.

79. 화성연구회 편. 2004. 수원문화예술사: 공연예술편. 수원: 화

성연구회.

Association for Research on Hwaseong, eds. 2004. *History of Culture and Art in Suwon: Performing arts field*. Suwon: Association for Research on Hwaseong.

- 논문 접수일: 2017. 7. 5.
- 심사 시작일: 2017. 8. 1.
- 심사 완료일: 2017. 9. 7.

## 요약

주제어: 수원극장, 공회당, 상인, 홍사훈, 양규룡

수원 지역극장의 시초는 '수원극장'이다. 192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수원극장은 '수원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일찍부터 수원의 명소로 인정되어 각종 행사가 열리는 일종의 공적 공간으로 기능한 바 있다. 이러한 수원극장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 '주식회사' 체제로 재탄생되기에 이른다. 수원극장은 수원의 유지였던 '양규룡'과 '홍사훈' 등의 사업가에 의해 건립-유지-경영-존속되었으며, '수원금융조합'과 '일본인 사업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유지·존속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원극장이 수원 주민

의 욕망과 의지를 담보하는 거대한 매체이자 공동의 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는 비단 수원극장으로 마감되지 않는다. 이후에 수원에서 건립되는 극장들도 이러한 건립 이념과 운영 의도를 일정 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수원의 지역민들은 수원극장에서 연극과 영화를 관람했고, 자신들의 공연과 화합을 선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민의와 각종 정보를 집결하고 정리하였다. 그래서 수원극장은 수원 지역민들의 인적 교류와 문화전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